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강진 청자골 달린 투르 드 코리아 2007

6일 열린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투르 드 코리아 2007' 정읍~강진 구간(162.8km) 엘리트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골인점인 강진 우시장 앞 도로를 역주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선 러시아의 세르게이 쿠덴초프(29·디스커버리채널 마르코폴로)가 3시37분26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박성화 "바레인戰 모험보다 안정"

9일 새벽 올림픽축구 亞최종예선 2차전

주전 대거 빠진 원정 경기 '방어'에 주력

"모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경기운영이 필요하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을 노리는 박성화호가 바레인과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한국시간 9일 오전 1시)을 앞두고 '안정속의 변화'를 2연승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박성화 감독은 4일 카타르 올림픽대표팀과 평가전에 20세 이하(U20) 대표팀 출신을 7명이나 선발투입해 경고누적으로 바레인 원정에 합류하지 못한 이근호(대구), 이승현(부산), 최철순(전북)의 공백을 메울 대체요원을 찾는 데 주력했다.

박 감독은 카타르 평가전을 통해 기존 베어벡호의 분위기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활력소를 찾으려 했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조직력과 주먹싸움 직전까지 갔던 그라운드 충돌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박 감독은 카타르전 전반에 박주호(숭실대)를 왼쪽 미드필더로 내세우는 실험을 했지만 전반 초반 몇 차례 위협적인 크로스 외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왼쪽 윙백 최철순의 공백은 김창훈(고려대)에게 맡겼지만 기존 이근호-최철순 콤비가 보여줬던 위협적인 오버래핑은 아쉽기만 했다.

더불어 K-리그에서 가속이 붙은 공격수 하태균(수원)이 아직까지 팀에 녹아들지 못해 최전방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박 감독의 부담거리다.

그나마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선 이상호(울산)는 측면과 중앙으로 오가면서 공격을 주도했고, 오른쪽 윙백 신광훈(포항) 역시 적극적인 수비와 공격가담으로 '합격점'을 받은 게 다행이다.

이에따라 박 감독은 바레인전 역시 1차전 우즈베키스탄전과 마찬가지로 조직력을 살리기 위해 U20 선수들의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선수들의 자리이동을 통해 주전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포백(4-back)의 경우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창수(대전)가 김승용(광주)과 함께 왼쪽 라인으로 이동하고, 중앙수비는 기존의 강민수(전남)-김진규(서울) 콤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백지훈(수원)과 기성용(서울)이 투입이 유력하다.

기성용은 박 감독이 수비에 더 중점을 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공격적인 감각이 뛰어난 만큼 측면 공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중앙 공격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걱정거리는 최전방이다. 최종예선 1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 나섰던 하태균(수원)-한동원(성남)조가 무득점에 그친 상황에서 카타르 평가전에 선발출격한 신영록(수원)-심영성(제주)조도 골맛을 못봤던 것은 아쉽기만 하다.

바레인전을 앞두고 "방어가 첫 임무다.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박 감독이 어떤 용병술로 최종예선의 첫 고비를 넘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바레인은 어떤 팀?

한국축구 괴롭혀 온 중동의 '복병'

박성화호의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첫 원정상대 바레인은 최근 한국축구를 괴롭혀 온 복병이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50위로 바레인(92위)보다 앞서는 등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 수 위로 평가된다.

올림픽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도 3전 전승을 거뒀다.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최종예선에서 1-0으로 이겼고, 2000 시드니 올림픽 최종예선에서도 두 차례 맞붙어 1-0, 2-1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3차전에서 시종 답답한 경기 끝에 후반 12분 터진 오범석의 중거리포로 간신히 1-0으로 승리하는가 하면, 지난 7월 열린 2007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충격적인 1-2 역전패를 당하는 등 한국축구는 최근 바레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바레인은 A대표팀 사령탑도 겸임하고 있는 체코 출신 밀란 마찰라 감독이 이번 최종예선부터 올림픽대표팀도 이끌고 있다.

마찰라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한국축구 저격수'다.

한국이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 재임 시절인 2003년 10월 열린 2004 아시안컵 예선에서 오만 대표팀에 1-3 패배를 당해 '쇼크'에 휩싸였을 때 상대 감독이 마찰라였다.

바레인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표팀을 지도했던 마찰라는 1996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는 쿠웨이트를 이끌고 한국을 2-0으로 눌렀다.

바레인은 베이징올림픽 2차 예선에서 4승2패로 카타르와 쿠웨이트(이상 3승2무1패)를 제치고 A조 1위를 차지, 최종예선에 올랐다. 6경기에서 17골을 넣었고 11골을 내줬다.

홈에서 4-2로 눌렀던 카타르와 원정경기에서 0-4로 대패하고, 쿠웨이트 원정에서도 0-3으로 패하는 등 홈과 원정 경기의 기복이 심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시리아와 최종예선 원정 1차전에서는 2-1 역전승을 챙기며 한국과 공동 선두로 나섰다.

시리아전에서 혼자 두 골을 뽑은 나이지리아 출신 귀화 공격수 존 제이시 아크와니와 올해 아시안컵 한국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이스마일 압둘라티프 등이 경계 대상이다.

역시 나이지리아에서 귀화, 바레인의 키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된 공격수 압둘라 파타이는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뛰지 못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풀럼맨 설기현 등번호 '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풀럼FC으로 이적한 설기현(28)이 행운의 숫자 7번을 달고 뛰게 됐다.

6일(이하 한국시간) 풀럼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리암 로시니어와 맞트레이드 돼 레딩FC를 떠난 설기현은 풀럼에서 로시니어가 달았던 등번호 7번을 이어 받았다.

설기현은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는 26번, 안더레흐트에서는 18번을 달았고,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울버햄프턴으로 이적한 뒤로는 줄곧 19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9번,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11번을 부여받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현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마시 로시츠키(아스널), 안드리 셉첸코(첼시), 해리 큐얼(리버풀) 등이 7번을 달고 있다.

풀럼 구단은 설기현의 프로필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른 2002 월드컵 때 설기현은 국민적 영웅이 됐다"고 소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미국프로축구 바꾸기 베컴 혼자선 힘들 것"

맨유 퍼거슨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지난 7월 미국프로축구(MLS)로 이적한 잉글랜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 혼자서는 미국축구를 바꾸긴 어렵다는 생각을 전했다.

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민극장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베컴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미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거대한 땅덩이가 라이벌 구도의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퍼거슨 감독은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당신이 로스앤젤레스에 가려면 비행기로 여섯 시간이나 걸린다. 서포터스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은 " 프리델, 맥브라이드 같은 미국 축구 최고의 선수들이 일찍부터 유럽에서 뛰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미국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페더러 "4연패 보인다"

US오픈 테니스, 로딕 꺾고 4강

여자단식 비너스도 4강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총상금 184억원) 남자단식 4강에 진출했다.

페더러는 6일 뉴욕 플러싱 메도 빌리 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8강전에서 앤디 로딕(5위·미국)을 맞아 3-0(7-6〈7-5〉 7-6〈7-4〉 6-2)으로 완승을 거두고 이 대회 4년 연속 우승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승리로 US오픈 26연승을 달린 페더러가 대회 4연패에 성공할 경우 1925년 대회에서 6연속 우승을 달성했던 윌리엄 틸덴 이후 첫 4년 연속 우승이 된다. 프로 선수들의 대회 참가가 허용된 1969년 이후로는 첫 4연속 우승이다.

페더러는 토미 하스(10위·독일)를 역시 3-0(6-3 6-3 6-4)으로 꺾은 니콜라이 다비덴코(4위·러시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페더러는 4강 상대 다비덴코에게 지금까지 9전 전승을 거두고 있다.

여자단식에서는 비너스 윌리엄스(14위·미국)가 옐레나 얀코비치(3위·세르비아)를 2-1(4-6 6-1 7-6〈7-4〉)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US오픈에서 현재 남녀 단식을 통틀어 유일하게 남은 미국 선수가 된 윌리엄스는 세계 1위 쥐스틴 에넹(벨기에)과 4강에서 맞붙는다.

둘의 맞대결에서는 2001년 첫 대결에서 에넹이 한 번 이겼을 뿐 최근 윌리엄스가 7연승을 거두며 7승1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자단식의 또 다른 4강 대진은 이날 나란히 승리한 스베틀라나 쿠즈네초바(4위)와 안나 차크베타제(6위·이상 러시아)의 대결로 압축됐다.

한편 주니어 여자단식에 출전했던 한성희(17·중앙여고)는 2회전에서 제니아 리키나(러시아)에 0-2(3-6 3-6)로 져 탈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남자핸드볼 일본 30-25 꺾고 준우승

올림픽 예선 출전권 확보

한·일 "편파판정 IOC 제소"

한국 남자핸드볼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일본을 꺾고 준우승, 내년 5월 열릴 국제핸드볼연맹(IHF) 자체 예선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태훈(하나은행)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6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스카이홀에서 펼쳐진 풀리그 최종전에서 일본을 30-25, 5점 차로 물리쳤다.

3승1패가 된 한국은 내년 5월 IHF 자체 예선에서 올 2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4위 프랑스와 5위 크로아티아, 아프리카 예선 2위 팀과 한 조에 속해 2장이 걸린 베이징행 티켓을 다투게 됐다.

앞선 경기에서 쿠웨이트는 카타르를 29-23으로 물리치고 4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의 노골적인 편파판정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양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한 빨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HF가 중동심판을 이용해 회장국인 쿠웨이트를 밀어준 사례를 수집한 뒤 각국 올림픽위원회(NOC)를 통해 IOC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亞학생축구 3년만에 정상

말레이시아 2-1 꺾어

금호고 김도훈 MVP

한국이 아시아학생축구선수권대회에서 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한국고등축구연맹은 "고교선발팀이 5일 오후(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5회 대회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말레이시아를 2-1로 꺾고 우승했다"고 6일 알려왔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홍콩 대회 이후 3년 만이다.

전반 10분 장석원(풍생고)의 헤딩 선제골 뒤 곧바로 동점골을 내준 한국은 연장 후반 6분 김도훈(금호고)이 천금같은 결승골을 뽑아 승리를 거뒀다. 팀 우승의 주역 김도훈이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이범영(신갈고)이 골키퍼상을 받았다.